

중국 드라마 '천당수'
한지혜 여주인공에

한지혜가 중국 드라마 '천당수'의 여주인공으로 캐스팅됐다고 소속사 예당엔터테인먼트가 26일 밝혔다.

26부작인 ‘천당수’는 중국 백화상 최고영화상을 4회 받은 황젠중(黃建中) 감독의 작품으로, 중국 전설의 자수 천당수를 소재로 하고 있다.

한지혜는 어머니를 찾아 중국에 온 한국 여인 전체의 역할을 맡았다. 부모에게 천재적인 예술 감각을 물려받은 자수 디자이너로, 온화함과 성실함을 무기로 갖은 역경을 이겨내고 최고의 자수를 만들어 내는 인물이다.



‘엔카의 여왕’ 돌아왔다

“보아, 동방신기처럼 일본어와 일본 정서를 공부하며 성공을 위해 철저히 준비한 후배들을 보면 자랑스러워요.”

일본에서 ‘엔카의 여왕’으로 불리는 가수 김연자(51)가 1974년 국내 데뷔 이래 처음이자, 20여 년 만에 고국에 복귀해 여는 첫 전국투어를 앞두고 일본에서 성공적으로 활동 중인 후배들을 칭찬했다.

나날 20일 경기도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를 시작으로 투어에 나서는 그는 최근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0 전국투어 콘서트-늘 꽃처럼' 기자회견회에서 "적을 알아야 싸워 이길 수 있는데 아무 공부 없이 일본에 와 노래하는 후배들을 보면 안타까웠다. 하지만 지금 후배들은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지 잘 알 정도로 똑똑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일본에 진출한 태진아 선배도 대환영”이라며 “나이가 좀 드셔서 고생될 텐데, 노래를 잘하는 분이니 같이 열심히 해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연자도 일본에서 도전 두번째에 성공했다. 1977년 18세에 일본에 진출했지만 3년간의 활

데뷔 37년만에 전국투어

“日 진출 후배 자랑스러워

고국무대 그리움 컸어요”

동 끝에 실패하고 돌아왔다. 이후 1982년 18살 연상의 밴드 악단장 출신 재일교포 김호식씨와 결혼했고, 남편의 격려로 1988년 일본으로 건너가 '엔카의 여왕'이라는 타이틀을 얻으며 20여년 간 활동했다.

“일본에서 한번 실패한 게 억울해서 다시 만
히하고 싶었어요. 1988년 서울올림픽 폐막 무
대에서 ‘아침의 나라에서’를 불렀는데, 이때가
일본 재도전을 위한 ‘찬스’라고 생각해, ‘아침의
나라에서’를 일본어로 불러 다시 데뷔했죠. 또
남편과 떨어져 살았기에 언젠가 시댁이 있는
일본에 가야 한다는 생각도 하고 있어서 여러
모로 시기가 맞아떨어졌어요.”

그런 그가 지난해 12월 ‘10분내로’를 타이틀 곡으로 한 새 음반을 내고 국내에 복귀한 것은 부모의 영향이 컸다. 2008년 8월 돌아가신 아버지를 임종까지 못한 효도를 어머니에게 다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더불어 그는 고국 무대에 대한 그리움도 컸다고 털어놓았다.

한국인이었기에 일본에서 성공하기까지 쉽지 않았다는 그는 “다행히 일본에서는 NHK ‘홍백가합전’에 우리 피를 가진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는 뒷소문이 날 정도로 한국 사람이 노래를 잘한다는 평이 나 있었지”며 “나는 국내에서 가얏고만 간드러지는 목소리로 노래했는데, 일본에서는 힘 있고 한 맺힌 방법으로 노래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일본에서의 어려움을 이기도록 옆에서 지켜준 사람은 남편이라고 했다.

“남편이 바른길로 인도해 줬기에 오랜 시간 일본에서 활동할 수 있었어요. 남편은 아버지처럼 인자하고 다정하게 저를 이끌어줬죠. 남편이 없었으면 일본의 김연자도 없었어요.”

또 그는 일본에서 활동하며 한국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도 설명했다. 그는 ‘홍백가합전’에 출연할 때 한복을 입었고, 일본인을 위한 한국요리책 ‘김연자의 한국요리, 맛있는 식탁’을 발간한데 이어 자신의 이름을 딴 ‘김연자

김치'를 일본에서 출시한 바 있다.

그는 '윤사마' 배용준을 언급하며 "일본에서 한국인이 느끼는 벽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린 사람이 배용준 씨"라며 "겨울연가"를 봐서 재미있게 봐 나도 배용준 씨의 팬이다. 배용준 씨가 자랑스럽고 앞으로도 한국을 위해 노력해줄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로 데뷔 37년째를 맞은 그는 “일본에 가기 전 국내에서 활동할 때는 전국투어 형식의 콘서트도 없었다”며 “국내 팬들의 반응이 궁금하고 걱정돼 많이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공연 때 목소리가 안나와 1시간 만에 중단하고 입장료를 환불해준 적이 있다"며 "요즘은 밖에 나가 걷고 달리는 등 체력 단련을 하고 있다. 콘서트 전에는 꼭 불고기를 먹는다"고 웃었다. 앞으로 점차 국내 활동에 비중을 둘 것이라는 그는 "마지막에는 꼭 돌아올 것이다. 그러기 위해 열심히 활동할 것"이라고 덧붙혔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당돌한 여자’ 돌아온다

가수 서지영 6년만에 연기 재개

가수 서지영(29)이 SBS TV 새 아침극 '당돌한 여자'로 6년 만에 연기를 재개한다.

최근 경기 고양 탄현 SBS 제작센터에서 만난 서지영은 “그동안 너무 연기를 하고 싶었다”며 “이렇게 기회가 다시 오니 너무 좋고, 내가 작품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뿐”이라고 말했다.

2004년 KBS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후 6년 만에 출연하는 드라마에서 그는 악녀를 맡았다. 그가 연기하는 세빈은 자기밖에 모르는 부자집 외동 딸로, 욕심을 위해서는 핏덩어리 자식마저 차갑게 버리고 돌아서는 인물이다.

“옛날 같으면 약역이 선했 내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것 전혀 없죠. 연기를 너무 하고 싶었고 많이 기다렸잖아요. 그런데다 처음 이 드라마의 대본을 받았을 때 너무 재미있게 읽었고 꼭 하고 싶었어요.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욕심이 났는데,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영광입니다.”

그는 “세빈은 감정의 기복이 크고, 순간순간 돌변하는 캐릭터”라며 “거짓말도 많이 하고 나쁜 짓도 많이 해 욕먹을 각오가 돼 있다”며 웃었다.

세빈은 중학교 친구 순영(이유리 분)과 처음에는 시누이-올케로 엮였다가 그다음에는 고부간이 된다. 그는 순영이 자기 오빠와 결혼할 때도, 그리고 자기 시아버지와 재혼할 때도 지독하게 방해공작을 펼친다.

“세빈이는 순영이를 중학교 때부터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장식품 같은 친구라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봤을 때는 순영이는 예쁘지도 않고 가난하고, 바보처럼 순박하니까요. 그런데 순영이 잘되니까 되게 미워하고 많이 괴롭힙니다.”

간간이 싱글 앨범을 내기도 했지만 그는 지난 6년간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 여기에 대한 갈망이 컸기 때문이다.

“그동안 놀았어요. 오디션을 보러 다니기도 했고 연기 레슨도 받았지만 기회가 안 왔어요. 그러다 시간이 많이 흘렀죠. 그래도 조금씩은 없었어요. 일이 뜻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준비하고 있으면 제 역을 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드라마를 시작으로 많은 작품을 하고 싶어요.”

/연출가

/연합뉴스

[illegible][illegible]